

트리코모나증 (Trichomoniasis)



김 순 재

건국대 축산대 교수
본지 편집위원

정 의

이 질병은 비둘기에 감염된 질병이었으나 칠면조, 닭 및 맹금수류에도 감염되는 편모충에 의한 질병이다.

구강, 인두, 식도 및 소낭내에 편모충이 증식하여 병변을 형성하며 주로 구강 및 식도에 특징적으로 기생한다.

병인체

○ 이 병원체는 *Trichomonas gallinae*이다.
○ 병원체에 따라서 병원성은 다르며 증상이나 병변을 형성하지 않는 *Trichomonas*의 보균계가

구강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.

○ 전방에 4개의 편모를 가지고 있다.

○ 크기는 $2\sim9\times5\sim19\mu\text{m}$ 로서 범위가 여러가지 크기가 있다.

발 生

○ 닭에서 발생은 흔하지 않으며 비둘기, 칠면조 및 맹금수에 발생하고 있다.

○ 1965년에 미국에서 칠면조에 발생하여 100만달러 이상 피해를 주었다.

○ 계절적으로 따뜻한 계절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.

○ 발생일령은 노계보다 어린닭에 급성으로 발생한다.

○ 조류중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비둘기와 칠면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.

전 파

○ 비둘기가 보균하고 다니는 발 생원으로 믿고 있다.

○ 입을 통하여 트리코모나스를 배출하므로 물이나 물통에 오염되어 전파된다.

○ 대부분 오염된 물에 의해서 전파된다.

○ 비둘기에 감염되면 비둘기 새끼의 발육과정에 흔히 전파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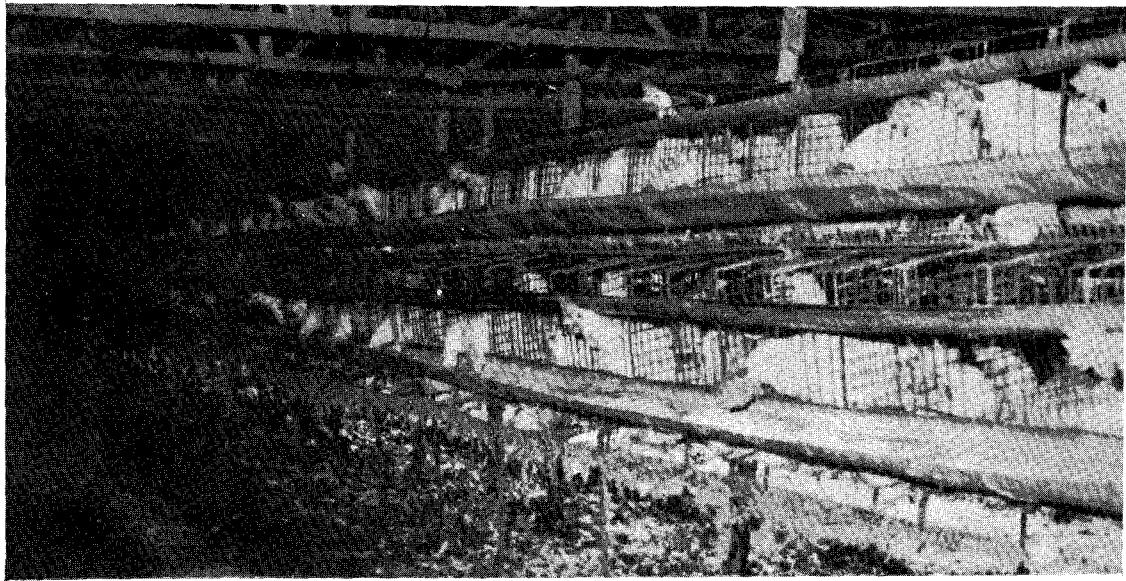
○ 새끼를 사육할 때 어미가 먹이를 토하여 새끼에게 먹이므로 전파가 용이하게 된다.

○ 칠면조와 닭은 피어 있는 물 속에 트리코모나스가 오염되어 서로 접촉에 의해서 전염될 수 있다.

○ 기타 질병에 의해서도 트리코모나스에 오염되어 전파될 수 있다.

증 상

임상증상



○ 감염된 비둘기와 맹금수는 침을 흘리며 다시 삼키는 등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.

○ 눈물이 눈에 차있고 부비강 및 안와 등에 병변이 생긴다.

○ 드문예이나 뇌에 침입하여 병변을 형성하였을 경우 신경증상을 나타내며 중심을 잃는다.

○ 칠면조에 있어서는 소낭이 텅비어있고 허탈한 모습을 하고 있다.

○ 감염계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.

○ 폐사율과 감염율은 범위가 넓으나 상당히 높다.

병리해부병변

○ 구강, 식도, 소낭에 주로 병변이 생긴다.

○ 비둘기에 있어서는 구강, 소낭 및 식도에 소형의 황색병변이 산재하여 있다.

○ 증상이 악화되면 간에도 침입하여 황색괴사 병소가 나타난다.

○ 이러한 병소를 세밀히 관찰하면 편모충이 존재하고 있어서 트리코모나스와 혼돈하는 경우가 있다.

○ 트리코모나스로 인한 감염은 닦이나 칠면조에서는 혼하지 않으나 칠면조에서는 미국의 경우

하부소화관에 침입하여 아급성의 감염을 가끔 볼 수 있다.

○ 편모충에 의한 가금의 병변은 특징적인 것이 없으므로 병리조직관찰이나 발육계란에 접종해 양하여 편모충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동정한다.

진 단

○ 전형적인 증상과 병변에 의하여 진단에 도움이 되나 병원체와 병변을 검사하여 진단한다.

○ 구강의 타액에는 트리코모나스가 많이 들어 있으므로 경검할 수 있다.

○ 그러나 수개의 트리코모나스는 건강한 가금에서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병변이 있어야 유의성있는 진단이 된다.

○ 구강점막이나 식도, 소낭에 병변을 찾아야 하며 때로는 전위에서 병변이 발견되기도 한다.

○ 구강의 점막에 병변은 계두의 경우 발두가 생겨 병소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별하여야 한다.

예방관리

○ 감염된 가금이나 보균된 가금은 격리수용하

여 건강한 가금에 전파되지 않도록 한다.

○ 물통에 물이 흘러가지 않고 항상 끼어 있을 경우 오염율이 높다.

○ 계사의 바닥은 항상 소독을 철저히 하고 캐이지와 모이통은 정기적으로 청결하게 한다

○ 계군에 감염 또는 보균체는 혼사하면 전파될 수 있다.

○ 비둘기나 칠면조는 닭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동일한 농장에 여러종류의 가금을 사육할 때 각종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다.

○ 비독성 원충살충제를 사료나 물에 타서 투여

하여 예방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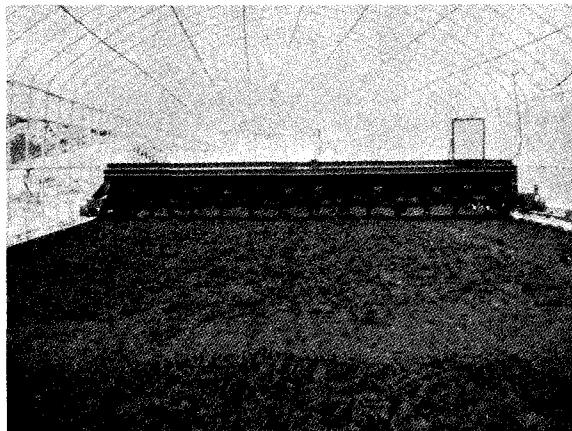
치료

○ 디메트리다졸, 아미노니트로다이아졸 엔헵틴 등의 약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나 비둘기에 투여시에는 정확한 투여량에 변동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.

○ 이러한 약제는 제라틴캡슐로 되어 있어 경구 투여가 가능하며 많은 계군에 투여시에는 음수 투여도 가능하다. *

전자동 축분건조 장치

태양열과 바람을 이용한 자연에너지 활용



● 특장 ●

- 전자동
- 연료비가 없음
- 무취로 공해가 전혀 없음
- 연분 처리 적합
- 완전 분쇄 건조
- 타이머 부착으로 작동 전후진
- 건조계분은 유기비료로 대인기

AUTOMATIC FEEDING SYSTEMS & INCUBATOR

平農畜機

〒180-86

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가곡리 536-1
전화 (033) 4-7484
야간 (서울) 803-6724